研究

美·日 신안보체제의 경쟁적 군사협력구조로의 전환과 일본의 TMD개발 방향*

김년수**

Ⅰ. 서론

이 논문은 탈냉전기 미·일 신안보체제에서의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 Theater Missile Defense) 개발 방향을 양국의 역학구조로부터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무장 해제를 당하고, 곧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의 점령체제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본은 1951년 9월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고 주권을 회복한 후, 미국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상당부분 의존하면서 오늘날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냉전기간 일본의 안보정책은 두 번에 걸쳐 큰 전환기를 맞았다. 이는 미·일 안보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그 궤도를 같이 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1951년 1차 안보조약을 맺고 전수방위 (專守防衛)라는 전후의 안보정책의 기축을 확립하였다. 또 일본은 1960년 2차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작전체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일본이 자체적으로 군비 증강의 의무를 갖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본격적인 군사화의 길을 튼 것이라는 국내·외의 비판이 고조될 만큼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큰 변화였다.

미·일 안보체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소련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 그

* 본 내용은 '01년도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리고 미국의 경제적 위상저하와 안보전략의 변화라는 국제정치질서의 변혁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보다 강화되었다. 그 구체적인 결실이 1996년 4월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 : 21세기의 동맹』(이하 『신안보공동선언』이라 한다), 그리고 1997년 9월 『2차 미·일 방위협력지침』(이하 『신방위협력지침』이라 한다)의 성립이었다.

이 논문은 탈냉전기 미·일 신안보체제에서의 일본의 TMD 개발 방향을 양국의 역학구조로부터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불량국가' (Rogue State)나 테러리스트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주요 방어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TMD 개발은 현재 미·일 양국의 군사기술협력의 핵심적인 분야가 되고 있다.

Ⅱ. 미·일 신안보체제의 배경과 구조

1. 미국의 對日 실질적 군사협력 중시추구

미국의 클린턴 정권은 냉전체제의 와해와 소련의 위협감소, 미국의 경제적 위상저하에 따라 기존의 對日 안보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정의·조정하였다. 탈냉전기 미국의 對日 안보정책은 다음과 같은 안보전략을 근간으로 추구되고 있다. 미국은 '관여' (Engagement)와 '확대' (Enlargement)전략을 기조로 하는 탈냉전시기 외교안보전략을 새롭게 확정하였다. '확대' 전략은 미국의 국가 가치인 민주주의·자유·인권·시장경제체제를 세계에 확대하여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국익 추구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 '관여' 전략은 미국의 국익과 긴밀한 대외 관계에 대해 선택적으로 개입하여 미국의 국익을 가장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탈냉전 이후 일극 구조의 정점에 선 압도적인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일정 규모의 병력의 유지와 군사 하이테크 혁명 (RMA =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에서 다른 국가에

* 森本敏, 『安全保障論 : 21世紀 世界の 危機管理』(東京 : PHP 研究所, 2000), pp. 170-171 참조.

비해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탈냉전기에 들어와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쇠퇴한 가운데, 냉전체제의 와해로 군사비의 대폭적인 삭감에 직면하였다. 미 국민은 냉전의 종결에 의하여 냉전시기와 같이 다액의 군사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국방의 현실에 직면하여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을 중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미군의 군사적 패권에 도전을 불허하는 對日 군사적 우위 구조를 견지하면서, 일본에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본을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對日 군사전략은 냉전기 공산세력의 봉쇄를 위해, 추구해온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중시한 협력적 군사협력전략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그러면 탈냉전시기 미국의 군사 패권전략에서 일본이 지닌 구체적인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점을 탈냉전기 미국의 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1994년『안보전략의 재검토』(the Bottom-Up Review)와 1997년의『국방계획의 정비/4년간』(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첫째,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의 활용이다. 미국은 탈냉전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력의 공백을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군사능력의 확대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미국이 군사패권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훌륭한 전진기지 역할을 제공해 준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 기조보고서 1992』(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1992)는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심적인 동맹국으로서, 전진배치 안보전략의 기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일본의 우수한 군사 과학기술능력의 활용이다. 미국은 군사기술 특히 하드웨어 부분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일본과의 병기부품의 국제분업을 추진하여 군사기술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군수산업에 있어서 하드웨어 부문 즉, 제품 제조 기술의 약체화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도 미군사력 우위의 미·일 안보체제를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독자기술 개발을 저지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협력을 보다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에어 기술협력에 의한 자위대 병기체계의 미국제 병기체계로의 상호운용성의 증대는 바

* 전술,장비,후방지원 등에 관해 공통성과 양용성을 확보하는 것.

로 미·일 군사력의 지휘·통제계통의 통합 수준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서 미국의 주도와 의도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1997년 체결한『신방위협력지침』제 6조는 미·일은 상호간 효과적인 방위 협력을 위해 "...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갖춘 미·일의 쌍무적 조정센터 (bilateral coordination mechanism)를 평소부터 준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달리 말해서 병기의 상호운용성과 지휘·통제계통의 통합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군사기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럽을 제치고 미국과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89년 6월 동맹국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22개의 중요기술을 선정하여 평가한 바 있다. 일본은 미국과 비교하여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회로와 제조기술 ▲갈륨비소 등 화합물 반도체의 제조기술 ▲지능머신과 로보틱스 ▲광섬유회로 ▲초전도 ▲바이오테크놀러지 재료와 프로세스 등 모두 6개 기술에서 우위, 그리고 ▲광섬유 ▲내열 고강도 경량복합재료 등 2개 기술에서 동등 수준인 것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유럽 (NATO)은 앞서는 분야는 없고, ▲지능머신과 로보틱스 ▲광집적기술 등 단지 5개 분야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로 조사되었다.**

셋째, 일본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현재 경제대국으로서 우수한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비용 분담의 경우, 현재 서구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2. 일본의 군사적 역할확대와 對美 자주적 군사협력 추구

냉전체제의 붕괴와 소련의 위협감소, 미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와 경제 중시의 정책 전환 등 국제안보환경이 변화되면서, 일본도 기존의 對美 안보관계의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경제 강국에 부응하는 군사적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소위 군사적 역할론자의 입지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군사적 역할론자의 안보논리를 보면, 미·일 안보체제를 안보전략의 기축으로 하면서도,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

---

* 小林秀之·西澤 優,『超明快譯で 讀み解く 日美 新ガイドライン』(東京 : 日本評論社, 1999), pp. 76-77. ; 松村昌廣,『美國覇權と 日本の 選擇』(동경 : 勁草書房, 2000), p.194.

** 日本ハイテク (하이테크) 戰略研究所編,『미일의 기술경쟁력 비교』, 정보화시리즈 19,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역, (대전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1), pp. 294 - 298.

록 자위대의 독자적 운용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군사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역할론자의 대표적인 정객인 오자와(小澤一郎)는 자위대를 재편성하여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전수(專守)방위전략으로부터 능동적인 평화창출전략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위대가 개별적 자위권 뿐만이 아니라 PKO나 국제연합군에 참가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이같은 군사적 역할확대 논리는 일본이 경제적 번영과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질서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국제국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국가란 보통국가를 의미하는데, 보통국가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당연히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역할론자의 안보논리는 1994년 8월 당시의 무라야마 (竹山富一) 수상에게 제출한 일본방위문제 간담회*의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향방 - 21세기를 향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보고서는 탈냉전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일본의 국익을 위해 수동적인 방위태세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능동적인 질서행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기능 충실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이 세계적·지역적 규모로의 다각적인 안보협력을 추진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각적인 안보협력의 형태로서 UN 평화유지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군비 감시체제의 강화, ASEAN 지역포럼 (ARF)과 아시아태평양 안전보장협력회의 (CSCAP)에서의 일본의 역할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유지대 (PKF)를 포함한 평화유지활동 (PKO)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PKF의 본체 업무에 대해서도 가능한 빨리 금지되어 있는 '참가 동결'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UN 평화유지활동은 무기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데, 이는 헌법 9조에서 규정한 무기 사용의 행사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자위대의 정보능력의 강화와 위기대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방위력 구축을 제언하고 있다. 1976년의 방위대강의 기초가 된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계승하면서 ▲위험에 대한 사전예지능력을 갖추기 위한 정보기능의 강화 ▲위험의 현재화 초기단계에서의 대처능력의 제고

---

* 일본 방위문제 간담회는 1994년 2월 호소카와 (細川護熙) 전 수상이 탈냉전시기 일본 안보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재계, 학계, 그리고 관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설치한 수장직속의 자문기관이다.

▲위험이 확대될 경우의 탄력적 대응능력의 강화에 각각 비중을 두고 일본의 자주방위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미·일의 경쟁적 군사협력체제로의 전환

자주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론과 미국의 對日 실질적 군사협력의 중시전략에 의한 양국의 안보관계는 1995년 미·일 절충의 일본의 『신방위대강』 확정, 1996년 4월 『신안보공동선언』과 1997년 9월 『신방위협력지침』의 성립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탈냉전기 신안보체제에서의 일본의 방위구조를 보면, 냉전기와 동일하게 미군사력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신방위협력지침』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일본은 ... 주체적으로 행동하여 조기에 반격하고,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적절히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탈냉전기 일본의 방위정책의 향방을 제시한 1995년의 『신방위대강』도 "(일본에 대한) 직접 침략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즉각 반응 행동하며, 미국과 적절한 협력 하에 방위력의 종합적·유기적인 운용을 꾀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침략을 배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해소된 탈냉전기에 들어 와서도 일본 안보의 미 군사력 의존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는 탈냉전기 새롭게 정의·조정된 미국의 對日 군사협력 중시전략과 일본의 현실적 선택이 조합된 결과이다. 미국은 군사패권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경제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미군의 군사적 패권에 도전을 불허하는 對日 군사적 우위 구조를 견지하면서, 일본에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방위를 미 군사력에 상당부분 의존함으로써 정치적·군사적 선택의 폭을 상당히 제한받고 있으나,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미국에 의한 국제 정치질서의 주도와 여기에 대한 일본의 안보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은 냉전시대 미국을 주축으로 하여 만들어진 동맹의 네트워크는 탈냉전시기에도 국제관계의 안정적인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 미국의 군사력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가진 국가가 예상되는 가까운 장래에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적 규

* 권호연, 『일본 신방위정책의 분석 및 자료』(세종연구소, 1996), p58.

모로 경제행위를 전개하고 있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정치·경제 질서의 안정은 특히 중요하다.

일본은 안보를 미 군사력에 의존하면서 한편으로는 냉전기와는 달리 미·일 안보체제 내에서 對美 군사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미 군사력의 우위 구조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확대와 독자적인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對美 군사협력의 영역을 보면, 냉전기의 '일본의 비상사태'의 경우로부터 "일본주변 비상사태'의 경우로 확대하였다. '일본주변 비상사태'는 그 지리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이 탈냉전기 미국의 글로벌 차원의 안보전략에서 서구의 NATO와 한 축을 이루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전략의 주요 주축이 되고 있음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對美 군사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왔었다. 지난 1960년 2월 26일 중의원 안보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극동)의 안전이 주변지역에 발생한 사건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경우, 미국이 여기에 대처하는 행동의 범위는 ... 위협의 성격 여부에 달려 있다. 반드시 (극동)에 한정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일 미군 기지는 그동안 극동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군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재일 미군기지는 베트남전쟁·걸프전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은 현재 『안보조약』의 제 6조에 근거하여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일 미군기지를 이용하여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미군이 극동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주변지역에 출동하는 경우, 미군은 보급·병참기지로서 재일 미군 군사기지의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여 그 지리적 범위는 크게 확대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보면, 이번의 일본의 군사협력 영역의 광역화는 기존에 추구해 온 전략의 현실화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미·일 안보조약에서 거론되어온 공식적인 지리적 범위는 극동이다. 극동은 필리핀 이북, 일본과 그 주변 지역·해역, 그리고 한국과 대만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 일본이 위기사태 발생시 맡게 될 對美 군사협력의 내용도 질적·양적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일본의 對美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핵적인 부분이 경

---

* 松村昌廣, 『前揭書』,p163.
** 『上揭書』

계·초계활동이다. 경계·초계활동은 정보교환·수색·구원·기뢰소해 활동 등을 말한다. 이는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 군사력에 추가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는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자위대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분석능력과 초계활동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 또 일본의 자위대가 공해상에서 직접 기뢰소해 작업을 펼치거나, 선박의 임시검문, 병참지원, 비전투원 피난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냉전기 일본은 단지 비상사태 발생시 미군에의 기지제공이나 일본 영내에서 미군의 작전을 돕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미·일 양국은 냉전기 對소 봉쇄를 위해 경제원칙이 무시되기도 하는 협조적 군사협력을 추구하여 왔지만, 탈냉전기에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경쟁적 군사협력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기 미·일은 군사기술의 협력에 있어서 소련을 중심 행위자로 하는 공산세력의 봉쇄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경제적 국익 추구라는 이해관계보다 우선 하였다.

Ⅲ. 미·일 신안보체제와 일본의 TMD 개발 방향

1. 일본의 TMD 개발 추진 경과와 시스템 운용구조

가. 일본의 TMD 개발 추진경과

탈냉전기 일본의 對美 군사협력구조가 경쟁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TMD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추구되어 갈 것인가? 우선 일본의 TMD 개발 추진경과와 그 시스템의 운용 구조를 살펴본 후, TMD가 갖는 군사·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 일본의 TMD 개발 방향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TMD 개발은 탈냉전기 미·일의 군사기술협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가 되고 있다.

미국은 탈냉전기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공격에 대한 주요 방어수단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일본에 TMD의 공동개발을 요구하여 왔는 데, 일본은 그동안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해 왔다. 일본은 1996년도『방위백서』에서 탈냉전 후 대량파괴 병기의 확산이 가져오는 위협 특히, 동북 아시아에서의 일본이 처한 위협을 지적하고 TMD의 개

* 松村昌廣, 『日美同盟と 軍事技術』(東京 : 勁草書房, 1999), pp169-170.

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동년 4월 미국과 『신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여기서 TMD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1998년에는 미국과 TMD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도 『방위백서』는 "TMD 체제의 도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해상배치 요격미사일체제가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은 1999년 6월 TMD의 해상배치 고층방어시스템인 NTWD 공동연구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한 바 있다. 일본의 나카다니 겐 (中谷元) 방위청장관은 2001년 6월 22일 도널드 럼즈벨드 미국방장관과 워싱턴에서 가진 회담에서 "만약 일본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보유하게 된다면, 국토 방위를 위해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의 도쿄신문은 2001년 8월 17일자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베이스라인 7'로 불리는 최신 이지스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TMD를 구성하는 해상배치 고층방어시스템 NTWD 기능의 탑재가 가능하다"고 보도하였다.** 일본은 현재 모두 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 데, 앞으로 2척의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일본의 해상배치 방어시스템에는 모두 6척의 이지스함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TMD 시스템의 운용구조

대략 반경 3,000Km 이내의 탄도미사일 방어용인 TMD 시스템은 지상배치 저층방어용 시스템, 지상배치 고층방어용 시스템, 해상배치 저층방어용 시스템, 해상배치 고층방어용 시스템의 4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저층방어용 시스템은 대기권내에서, 고층방어용 시스템은 대기권 외에서 각각 상대편의 공격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미 육군은 지상배치 저층방어용 시스템으로 PAC 3 (PATRIOT Advanced Capability), 지상배치 고층방어용은 전역고고도 지역방어시스템 THAAD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각각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미 해군은 이지스함에 스탠다드미사일 (Standard Missile)을 장착하여 해상배치 저층방어용으로 활용하고, 해상배치 고층방어용으로 해군전역방어시스템 NTWD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대편의 공격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곧 바로 군사위성이 이를 발견·추적하여 광범위한 착탄 지점을 계산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육상과 공중에 상존하는 위성 이 외의 정보체계를 활

* 『조선일보』, 2001년 6월 23일.
** 『조선일보』, 2001년 8월 17일.

용하여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TMD는 상대편의 공격미사일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위성의 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2. TMD의 군사·정치적 의의

일본의 TMD 개발은 미국의 군사패권전략, 미·일 안보체제의 역학구조, 일본의 안보전략 등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응축되어 있다. 우선 일본이 미국 주도의 TMD 공동개발을 추구하는 경우를 보자. 첫째, 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일본 병기체계의 미국에의 예속화를 심화시키고, 군사력의 독자전력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지휘·통제 시스템은 군사력의 핵심수단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국은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전제로 하는 동맹체제의 역학 구조를 활용하거나, 이미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의 지휘·통제계통을 지배하려 들 것이다. 즉 미국은 TMD 시스템의 중추인 조기경계위성을 지배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과 공동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이 위성시스템을 제조·발사·운영하는 것으로 되고, 일본은 단지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위해 병기체계를 미국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미국제의 병기와 병기체계를 조달하지 않을 수 없다. 병기와 병기체계의 예속화 심화는 탈냉전기 일본에게 요구되고 있는 군사력의 독자 전력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는 외교·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TMD 정보를 계속적으로 입수하기 위하여 미·일 관계를 미국의 관점으로부터 보게 되고, 일본은 안보·외교 전반에 걸쳐서 미국에의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다. 종국에 가서는 미국에 대한 정치적 종속을 지금보다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TMD 개발에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경우도 미·일 안보체제의 역학구조로부터 보아 여전히 문제는 제기된다. 일본이 설령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TMD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탈냉전기 일본 안보전략의 기축인 미·일 안보체제에 악영

---

* 森本敏, 『前揭書』, pp. 437 - 438 참조.
** 松村昌廣, 『日美同盟と 軍事技術』 (東京 : 勁草書房, 1999), p. 79.

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의 TMD 개발은 일본의 지휘·통제 시스템의 자체 확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위대가 미 군사력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비춰지고, 이것은 미국이 전제로 하는 미 군사력의 우위구조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미·일 안보체제의 결정적인 손상은 불가피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의 이러한 對日 시각은 다음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에 대해,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함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포착과 분석능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능력은 당시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미국은 심각한 우려와 경계심을 표명한 적이 있다. 일본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독자의 정보수집·처리·분석에서 상당 수준의 고도의 지휘·통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3. 일본의 TMD 개발 방향

일본은 미·일간 안보체제의 역학구조나 일본이 처한 안보여건을 고려해 보면, 일본이 TMD 시스템 개발에서 채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일본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을 불허하는 미·일 안보체제의 역학구조를 고려하면서도, TMD 시스템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개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가?

현재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가 각각 별도의 지휘·통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자위대의 기지방공지상경계조직 BADGE (The Basic Air Defense Ground Environment)**, 해상자위대의 함대자위 SF (Self -defense Fleet), 그리고 육상자위대의 한정적인 거점방위용 지휘·통제 시스템이 바로

---

* 松村昌廣, 『美國覇權と 日本の 選擇』(東京 : 勁草書房, 2000), p. 194.

** 항공자위대는 지금까지 방공전투관리, 지휘, 통제용으로 BADGE 시스템을 개발하여 배치하여 왔는 데, 그 운용면에서 해상자위대보다 對美 독자성이 훨씬 높다. 항공자위대는 냉전기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일본열도를 방위하겠다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으므로, 해상자위대보다 높은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상자위대는 미국과 디지털 데이터의 상호교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미 해군과의 공동작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결여할 수 없는 ROE <교전규칙/The Rules on Engagement> 와 SOP <표준작전절차 /The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s)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어 왔다. 때문에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는 지휘·통제와 지휘·통제시스템, 즉, 조직과 하드웨어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우선 순위를 채택하고 있다.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통합의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일본 자위대는 냉전기간 소련군의 침략에 대비하여 미 군사력을 보완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으므로, 현실적으로 높은 통합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일본은 TMD 시스템의 운용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조합시켜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항공자위대의 BADGE를 중심으로, 육상자위대의 한정적인 거점방위용 지휘·통제시스템과 해상자위대의 SF를 연결하여 TMD 운영의 유효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TMD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이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기경계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항공자위대의 BADGE는 당초 소련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소련의 항공기에 대한 索敵·추적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등 소규모의 비행물체, 그리고 초저공 또는 고고도 공역을 비행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조기경계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일본이 TMD 시스템 개발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는 지휘·통제 시스템을 갖춘 조기경계위성 시스템의 개발에 높은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 기술을 조기경계나 추적 등 군사적 용도에 활용한 경험은 없으나, 이미 민간 우주항공 산업부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스템의 구체적인 개발은 미·일 안보체제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한정적인 기능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면서 추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마쯔무라 마사히로 (松村昌廣)는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기경계위성 시스템을 정지궤도상에 고정시켜 놓고 동아시아만을 경계 대상으로 한다는 개발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森本敏, 『前揭書』, p.443 참조.

** 森本敏, 『上揭書』 pp. 436-437. : 山下正光 外, 『TMD』 (東京 : TBSワリタニカ, 1994), p. 205.

*** 松村昌廣, 『日美同盟と 軍事技術』 (東京 : 勁草書房, 1999), p.136.

**** 松村昌廣, 『上揭書』, p.147.

***** 『上揭書』. p. 148

Ⅳ. 결론

이 논문은 지금까지 탈냉전기 미·일 안보체제의 경쟁적 협력구조 하에서 일본의 TMD 개발 방향을 양국의 역학구조로부터 분석하여 보았다. 미 군사력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TMD 개발에서 조기경계 위성시스템같은 신뢰성 있는 지휘·통제 시스템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음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이 경우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한정적인 기능을 갖는 조기경계위성시스템 개발 등과 같은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일본 군사력의 향방은 한국의 안보와 동북 아시아의 안보환경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김강녕, "미래전의 양상과 우리의 대응",『2001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분과 : 군사정책・전략/미래전』,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01.

[2] 권호연, 『일본 신방위 정책의 분석 및 자료』, 세종연구소, 1996.

[3] 신진, "민군 겸용기술개발 전략을 통한 군사력 개선방안",『오늘의 군사운영분석』, Vol 15, 1999.

[4] ハイテク (하이테크) 日本戰略硏究會編,『미일의 기술경쟁력 비교』, 정보화시리즈-19.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역. 대전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1.

[5] 藤井嚴喜,『 ジョージ・ブッシュと日美新時代』, 東京 : 早稻田出版, 2001.

[6] 小林秀之・西譯優, 『超明快譯で 讀み解く日美 新ガイドライン』, 東京 : 日本 評論社, 1999.

[7] (日本) 防衛廳,『防衛白書』, 1997・2001.

[8] 防衛産業・技術基盤硏究會 (日本),『防衛産業・技術基盤の 維持・育成に關する 基本的 方向』, 2000.

[9] 島川雅史,『アメリカ東アジア軍事戰略と日美 安保體制』,東京 : 社會評論社,1999.

[10] 松村昌廣,『 日美同盟と軍事技術』, 東京 : 勁草書房, 1999.

[11] 『美國覇權と日本の 選擇』, 東京 : 勁草書房, 2000.

[12] 室山義正,『日美 安保體制 (下)』, 東京 : 有斐閣, 1992.

[13] 祧井眞, 『2001年 日本の 軍事力』, 東京 : 祥伝社, 1998.

[14] 森本敏, 『安全保障論 : 21世紀 世界の 危機管理』, 東京 : PHP 硏究所, 2000.

[15] 山下正光 外, 『TMD』, 東京 : TBSワリタニカ, 1994.

[16] Chinworth, Michael W., Inside Japan's Defense : Technology, Economic & Strategy, Washington : Brassey's (US), INC, 1992.

[17] Green, Michael, Arming Japan : Defense Production, Alliance Politics, and the Postwar Search for Autonomy, New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18] 『조선일보』, 일본의『産經新聞』등 한국과 일본의 종합일간지.